

민선 제4대 윤옥기 교육감 취임사



제 12 대 윤옥기 (제4대 민선)

재임기간 : 제12대 (2002.4.20~2005.5.5)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교육 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기교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으뜸 경기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민선 제4대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 학교운영위원님과 96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이규세 경기도의회 의장님, 강창희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경기교육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교육가족 대표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변혁의 시기에 경기교육을 이끌어 안정과 발전의 기틀을 다져 오신 조성운 전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며, 역대 교육감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육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근거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시대를 통틀어 변하지 말아야 할 인본주의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고양시켜야 하는 고귀한 임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최근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추된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 한편,

학생 교육 시설 확충, 부족 교원 확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경기도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하여 선생님과 학부모님, 도민 여러분의 경기도교육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경기도교육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이 여건상 많은 어려움도 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교육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은 규모의 방대함, 지속적인 양적 성장, 구조의 복잡성, 교육욕구의 다양성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잠재력과 역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열망, 선생님들의 고귀한 성품과 뛰어난 전문성,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역도적인 경기도교육 여건을 기반으로 생동감 넘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경기도교육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으뜸 경기도교육을 건설하고자,

임기중에 추진해 나갈 경기도교육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넘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우수해야 하고, 특성을 살리는 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력 신장, 인성과 창의성 계발을 경기도교육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의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준화 지역 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제7차 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교육 여건의 상향의 평준화를 이룸으로써 어떤 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는 물론 특기를 가진 학생을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하여 대학과 산업체에 직결되는 연계교육 추진으로 실업학교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이 부당하게 교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철대적으로 수용하여 폐교를 원치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학교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6만여 교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장은 장학관, 교육장에 과감히 발탁하고 초빙 교장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근무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직원 공동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노후된 주택은 점차 개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교원 해외 연수를 확대하며, 교원 자율연수비도 현실화 하겠습니다.

교무실에 교원 업무 보조원을 점차 확대 배치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사립학교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립학교발전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건학이념에 따라 사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사립 교원에게 전문직 임용의 길을 넓히며, 공립학교로의 특채도 확

대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신·증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0만 학생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모든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편의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전용 다목적 복지문화회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

각 권역별로 교직원 휴양시설을 설립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교육지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도교육청 제2청사 및 기초과학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부지역에는 종합교원연수원을 건립하여 교직원의 연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안정성,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를 조기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며,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신설하고 우수 사이버 강사를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도모하며,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설에 최선을 다하고, 신설 학교에는 관리직을 사전에 배치하여 개교에 따른 학부모님과 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관리직과 전문직 임용시 여교원 수를 증원하고, 초등교육국 신설 및 유아교육담당관·특수교육담당관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교육감 재임시에 이룩하고자 하는 공약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자율교육, 책임행정을 기필코 구현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의 목표가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책무성을

제고하여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학교 자율 경영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봉사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이규세 도의회 의장님,

강창희 교육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96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시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활기찬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7만여 경기교육가족의 헌신, 180만 학생의 면학 의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경기도민의 염원으로 이루어 온 경기교육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명실공히 도약과 창조의 으뜸 경기교육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취임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22일

경기도교육감 윤 욱 기